



‘트리거’ 흥행 방아쇠 당겼다

디즈니+ 시리즈 ‘트리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서라도 안에 들어가서 증거를 찍어야 해. 그래야 나쁜 짓을 멈추니까. 다른 이유? 그만 거 없어”

비장한 얼굴을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 ‘트리거’의 팀장 오소룡(김혜수 분·사진)은 팀에 새로 들어온 ‘중고 신입’ 한도(정성일)에게 직업의 사명감에 대해 열변을 늘어놓는다.

듣고 있던 모두가 숨죽인 사무실의 정적을 깬 것은 신입의 한마디. “굳이? 왜요? 그건 너무 올드하달까?”

2화까지 공개된 디즈니+ 새 시리즈 ‘트리거’의 주인공들은 능력 있고, 정의로운데, 하나같이 ‘꼰대’가 충만하다.

팀의 중심에서 있는 오소룡은 이름만큼이나 독특한 캐릭터다.

시청률 1위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간판 MC인 그는 취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장전된 총구 앞에서 오히려 ‘좌보라’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낙하산을 타고 출입이 막힌 지역에 잠입하기도 한다.

‘트리거’ 팀의 신입 한도도 “포라이” 소리를 자주 듣는다. 선배 감독을 향해 소변을 싸고 욕설을 뱉는 ‘오줌 테러’를 저질러서 드라마극에서 방출당했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자자하다.

3년 차 조연출 강기호(주종혁)는 오소룡과 한도에 비하면 양반이지만, 역시 평범하지는 않다.

오소룡 팀장을 존경하고, 한도를 질투하며, 또 이들

과 울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인물이다. 드라마는 이처럼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로 모인 ‘트리거’ 팀이 경찰도, 검찰도 해결하지 못한 강력 사건들을 끝까지 추적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이야기를 박진감 있게 펼쳐낸다.

사이비 종교, 동물 학대, 스토킹 범죄 등 현대사회의 어두운 범죄와 사건·사고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다뤄는데, 이를 무겁게만 끌고 가진 않는다.

전반적으로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현실성보다는 속 시원한 ‘사이다’에 초점을 맞췄다.

오소룡과 팀원들이 기발한 방법으로 취재를 하나씩 해나가는 전개 자체는 다소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소룡이 카메라 앞에서 촌철살인 대사로 정의를 구현하는 장면은 충분히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무엇보다 등장인물들의 코믹한 케미(호흡)가 웃음을 자아내며 보는 재미를 더한다. 열정 넘치는 팀장 오소룡과 개인주의적 신입 한도는 사사건건 부딪치고, 다른 팀원들은 고래 싸움에 낀 새우처럼 찢쩍대며 식은땀을 흘린다.

배우들의 열연도 관전 포인트로 빼놓을 수 없다. 촬영 중 오른쪽 허벅지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했다. 김혜수는 추격 장면에서의 액션 연기는 물론,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도 기대만큼 잘 소화해낸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로 이름을 알린 정성일은 전작에서의 도도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영동한 ‘아웃사이다’ 같은 모습을 그려내고, 주종혁은 익살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로 작품 곳곳에서 웃음을 자아낸다.

/연합뉴스



로제 ‘아파트’ 식지않는 열풍

영싱글차트 3주 연속 2위... 지민 ‘후’ 13위

블랙핑크 로제(사진)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히트곡 ‘아파트’(APT.)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3주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파트’는 그레이시 에이브럼스의 ‘댓츠 소 트루’(That’s So True)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아파트’는 주중 차트 1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순위를 유지한 데 만족해야 했다.

지난해 10월 발매 후 영국 싱글차트 4위로 데뷔한 ‘아파트’는 이후 2위, 5주 연속 3위에 오르는 등 13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연말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던 캐럴라인이 빠진 뒤로는 2위로 순위를 끌어올려 차트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솔로 2집 타이틀곡 ‘후’(Who)는 13위에 올라 누적 20주째 차트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청춘 로맨스 ‘멜로무비’

넷플 다음달 공개... 박보영·최우식 호흡

배우 박보영과 최우식이 로맨스 호흡을 맞추는 넷플릭스 새 시리즈가 다음 달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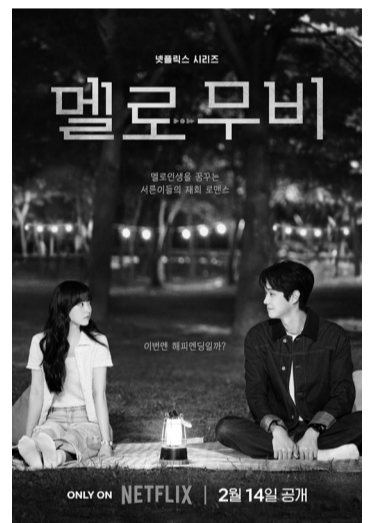
넷플릭스는 이들이 출연하는 새 시리즈 ‘멜로무비’를 2월 14일 공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멜로무비’는 사랑도 하고 싶고 꿈도 이루고 싶은 청춘들이 서로에게 영감이 돼주며 각자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과정을 그린 로맨스다.

최우식은 단역 배우 출신 영화 평론가 고경 역을, 박보영은 영화를 싫어했지만 영화감독이 된 여자 김무비를 연기한다. 무명 작곡가인 홍시준 역에는 이준영이, 홍시준의 전 연인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손주아 역에는 전소니가 나선다.

드라마 ‘호텔 델루나’, ‘스타트업’, ‘빅마우스’ 등을 만든 오충환 감독과 ‘그 해 우리는’의 이나은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이 작가는 “영화 같은 인생을 꿈꾸는 청춘이 마주하는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의 모습을 그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청률 1위 탐사보도 프로그램 좌충우돌 제작기 경찰·검찰 해결 못하는 강력 사건 추적해 정의 구현 취재 위해 물불 안가리는 PD·감독 등 풀끼 충만 1·2회 공개...배우 김혜수·정성일 생활연기 일품



홍상수(왼쪽) 감독과 배우 김민희.

홍상수·김민희 올 봄 출산설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 지난해 여름부터 병원 동행 등 제기

홍상수(65) 감독의 연인인 배우 김민희(43)의 임신설이 제기됐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 올해 봄 출산을 앞섰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최근까지도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다.

연말뉴스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홍 감독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2016년 열애설에 휘말린 홍 감독과 김민희는 이듬해 이 사실을 인정했다.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그는 2016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A씨가 사실상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해 무산됐다.

이후 홍 감독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2019년 기각됐다. 홍 감독이 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희는 홍 감독과의 교제 이후 그의 작품에만 출연하고 있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7)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 여우주연상, ‘수유천’으로 로카르노영화제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